

장보고와 해상강국

-장보고의 과오를 타산지석으로-

권정한, 박문규, 신일도, 이의재, 이정우(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1. 머리말

해상왕 장보고,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이름이다. 청해진을 설치하고 삼국무역을 장악하였던 인물로서 우리는 장보고를 배워왔다. 현재는 TV에서 방영될 정도로 장보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조선산업에서 상당한 흑자를 보며 세계 조선1위국으로 성장하였고, 해양을 통한 전세계와의 무역으로 세계 7위 경제 대국을 이루었지만 조선 해양분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미비하였기에 무척 안타까웠다. 다행히 요즘 들어 장보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무척이나 반가운 일이었다. 왜냐면 이러한 해상왕 장보고에 대한 관심은 곧 바다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감히 장보고를 왕이라 칭한다. 그만큼 장보고가 이룬 업적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는 9세기 신라 해양활동의 영역을 확장하고, 동서양 해상 교역의 한 축을 담당하였으며, 민간 무역을 통하여 국부를 축적하고, 해적선을 소탕하여 연해민의 평화로운 생업을 보장하는 등 많은 업적을 남겼다. 그런데 그가 죽은 다음에는 어땠는가? 장보고가 죽은 다음 우리나라는 해양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순식간에 잊어버렸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며 어쩌면 장보고가 비록 다방면에서 매우 뛰어난 인물이었지만 또한 여러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장보고와 청해진이 갖는 여러 가지 한계

점과 문제점 등에 대해 생각해보았고, 장보고 시대 이후 해상무역 상황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장보고는 분명히 위대한 업적을 쌓은 위인이지만 그 역시 완벽할 수는 없었던 것 같다. 선각자로서 바다에 대한 중요성을 깨닭았지만 역시 문제점을 갖고 있었던 해상왕 장보고에 대해 알아보며 그가 지니고 있던 문제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오늘날 우리가 해상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해야 할 일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하자.

2. 장보고의 정치적 한계

청해진은 장보고와 통일신라 정부의 이해관계에 의해 생긴 부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장보고는 당시 동포들이 해적들에게 약탈당하는 것을 보고 백성들을 지켜주길 원했고, 신라 정부 또한 백성보호의 필요성을 느껴 두 입장이 결합하게 되어 청해진이 생겼다. 이 과정에서 장보고는 주변 해상을 장악하여 부를 쌓게 된다.

장보고의 청해진과 신라 정부 사이의 관계를 그 추이에 따라 정리해 보자.

1. 장보고가 산동반도를 중심으로 해상 무역을 활발히 전개하던 시기에 청해진 설치를 건의하여 청해진을 설치함.
2. 권력 다툼 과정에서 청해진으로 온 김우징을 장보고가 도와 왕으로 만들어 줌.
3. 자신의 딸을 문성왕의 왕비로 만들려고 시도

학생연구보고

장보고와 해상강국 – 장보고의 과오를 타산지석으로-

하다가 염장에게 살해당함.¹⁾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장보고가 처음부터 권력에 욕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김우징이 과거의 정에 호소하여 장보고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고, 그 청을 장보고가 들어 주면서 장보고는 권력에 깊숙이 관여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장보고는 권력에 욕심을 내게 된다. 그래서 자신의 딸을 문성왕의 왕비로 만들려고 하는데, 주위 관리들이 이 장보고의 신분이 낮은 점을 이유로 반대하여 결국 장보고는 뜻을 이루지 못한다. 이에 분개한 장보고가 반역을 일으키려다 염장에게 거꾸로 살해당하게 된다. 여기서, 주위 관리들이 장보고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기에 그들은 장보고를 살해한 것일까? 그것은 장보고와 청해진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한계 때문일 것이다.

장보고의 청해진 세력의 정치적 한계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 신라의 골품제에 입각한 장보고의 신분적 제약
2. 청해진의 설치는 국왕의 인정을 받았지만, 그것이 공식적인 정부 기구는 아니었다.
3. 중앙 정계로의 진출에 반발한 중앙 귀족, 관료들의 장보고에 대한 견제.²⁾

장보고는 중앙정부로부터 청해진대사(淸海鎮大使)라는 관직을 받는다. 그런데 당시 신라에는 대사는 관직이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청해진대사는 관직은 골품제도 및 관등제도의 규정에 구애를 받지 않는 예외적인 것이다. 청해진을 설치하자고 한 자가 장보고였고, 그의 뛰어난 능력을 대신 할 사람이 없었기에 당시 중앙정부는 그를 청해진의 책임자로 임명할 수 밖에 없었던 것 같다. 그러

나 낮은 신분의 그에게 진의 책임자라는 직책을 내릴 수는 없었으므로 현재 제도에 존재하지 않았던 대사는 관직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장보고가 활동하던 당시 당나라는 중앙정부의 힘이 약화되어 각 지방의 절도사가 독자적인 세력으로 활동하던 시기임을 감안한다면 신라가 대사는 관직을 장보고에게 내렸다는 것은 이미 청해진을 독자적인 세력으로 인정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³⁾

따라서 청해진 세력은 신라 외곽에 존재한 독자적인 정치 집단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청해진은 장보고의 개인적 계획 또는 포부가 국가의 이익과 일치하여 군진의 형식으로 설치되어 출발했으나 직접적인 국가적 군사 조직 편제에 편성되지 않았던 것이다.

홍덕왕때에 지방 군진 세력으로서 백성들의 보호와 대외 무역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던 장보고의 청해진 세력이 홍덕왕이 세상을 떠난 후 차분히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중앙 정부의 혼란 여파가 언제 자신들에게 미칠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장보고는 중앙 정치 현실에 적극적인 개입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여기에는 김우징과의 개인적 친분이나, 불의를 참지 못하는 장보고의 대의명분도 일정하게 작용하였겠지만, 보다 직접적으로는 역시 중앙 정부의 혼란이 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던 장보고로 하여금 왕권 쟁탈전을 비롯한 정치 현실에 개입하도록 만든 것이다.⁴⁾

이러한 장보고의 중앙정치에의 개입은 중앙귀족들의 견제를 받게 된다. 중앙의 진골귀족 중심의 정치세력에게는 장보고가 보유한 청해진의 군사력이나, 왕실과의 통혼 그리고 중앙정계에로의 진출 등이 모든 것이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특히 문성왕이 장보고의 딸을 두 번째 왕비로 맞이하려 하자 중앙

1) <해상왕 장보고 그는 누구인가?> 제4장 청해진과 신라 정부와의 관계(p. 67~76) 중.

2) <해상왕 장보고 그는 누구인가?> 제5장 해상왕국의 몰락(p.77~97) 중

3) <장보고와 베네치아의 교훈>박순옥

4) 해상왕 장보고, <http://www.changpogo.or.kr/main.asp?CMenus=1&Cgubun=1&CPage=depth_05_01.html>

귀족, 관리들은 강하게 반대하였는데, 이것은 중앙 관료들이 장보고의 신분상승과 정치적 영향력 확대가 자신들에게 해가 될 것이라 생각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국 장보고가 살해되면서 일련의 사건은 종지부를 찍게 되었고, 청해진은 이후 급격히 쇠퇴하여 사라지게 되었다.

결국 선부른 권력으로의 진출이 장보고의 죽음과 청해진의 혁파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3. 후계자 양성의 부재

장보고를 살해한 염장은 장보고의 부하들을 데려다 놓고, 자신을 따르기를 강요하는데 그를 거부하여 대항하는 자가 없었다고 한다. 일본 고대의 역사책인 <속일본후기>에는 장보고 사후 842년에 장보고의 부장이었던 이창진이 염장을 제거하기 위해 군사를 일으켰다고 되어있지만 이 사건은 이미 장보고가 사망한 지 2개월 이후의 일이었다. 장보고가 살해된 직후에 청해진 세력이 염장에게 저항하지 못했다는 것은 청해진이 장보고 개인의 능력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있었음을 보여준다.⁵⁾ 즉, 장보고 이외에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것은 곧 장보고가 자신의 뒤를 이을 만한 자를 키우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장보고가 조금 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미래를 생각했다면 자신이 죽은 이후에 청해진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인재를 길러야 했을 것이다. 자신의 후계자를 지목하고 그에게 리더로서의 여러 가지 자질들을 가르쳤다면 청해진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는 않았으리라 본다.

4. 장보고의 해상무역 독점

4.1 장보고에 의한 무역 독점

장보고가 해적들을 소탕하고 해상 무역을 장악한 후, 신라, 당, 일본 간의 공적무역과 사 무역은 거의 전부 청해진 사람들이 독점하다시피 하였다.

장보고는 강력한 해군력을 바탕으로 그 지역에 지나가는 배를 모조리 통제했으리라 생각된다. 바다에도 일정한 항로가 있으니까 그 길목을 지키며 몰래 지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적들을 제압하고 아무나 함부로 못 다니게 한 다음 자기들이 허락한 배만 다닐 수 있게 하는 식으로 독점 무역이 가능했을 것이다.

장보고의 몰략을 초래한 직접적인 원인은 그의 중앙정치에의 진출 야망, 특히 납비(納妃) 문제가 유산된데 있었으나, 이와 더불어 여러 가지 복잡한 요인이 얹혀 있었다. 특히, 청해진 세력의 등장으로 해상무역의 이익이 축소된 서남해안의 군소상인들도 장보고의 무역독점에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이들은 청해진의 설치로 말미암아 장보고의 통제 아래 들어감으로써 종전에 자신들이 누리던 해상무역의 대부분을 잃게 되었던 것이다. 특히 조정에 대해서 노예무역을 다시금 허가해 줄 것과 청해진의 무역 독점 행위를 시정해 줄 것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러한 요인들은 중앙귀족 세력의 납비거부로 구체화되었고, 드디어 염장의 장보고 암살사건으로 마무리 되었다.⁶⁾

4.2 독점으로 인한 문제점

보통의 경쟁상태에서는 장기적으로 초과이윤이 없다. 즉, 자기가 일한 만큼 별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독점에서는 장기간 막대한 초과이윤이 발생하게 된다. 장보고는 해적들을 제압하고 무역을 독점함으로써 엄청난 이득을 취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남해안지방의 군소 해상세력들은 장보고의 무역독재로 그 이익을 잃게 되었을 것이고, 이는 장보고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지게 된다.

5) <천년전의 글로벌 CEO, 해상왕 장보고> 삼성경제연구소

6) <대외문화교류연구 p.184-185>권덕영 외 6인, <나를 깨워라 (한국사의 경계에 선 사람들)>내일을 여는 역사 지음

물론 해적을 소탕하고 중계무역을 통해 많은 이익을 얻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 활동으로 커진 힘을 이용하여 권력을 독점하려 했음은 문제가 있다.

또 다른 독점에 의한 문제점은 그러한 독점세력이 무너졌을 때이다. 장보고에 의해 우리나라를 강력한 해상권을 가지게 되었으나 장보고가 죽은 후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해상권은 급격히 줄어들게 되었다. 만약 당, 일본과의 교역에 있어 여러 세력들이 활발히 참여하여 다자간의 경쟁 속에 해상무역이 이루어 졌다면 청해진의 혁파이후에도 해상권의 큰 손실 없이 해상무역을 잘 해나갈 수 있었을 것이다.

4.3 청해진 혁파이후 무역 독점의 해소

비록 청해진의 혁파이후 해상권이 많이 약해졌으나 무역독점을 통해 전국각지에서 해상세력이 대두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해상세력은 호족 중의 일부로 보여지는데, 강주(康州)의 왕봉규, 금주(金州)의 이언모(李彥謨), 울산의 박윤웅, 개성지방의 왕건, 나주 오씨, 영암 최씨 등을 들 수 있다. 아울러 신라 중앙정부에 의한 무역 장악노력(해상요충지의 여러 진)도 보이고 있고, 민간무역업자들의 등장도 엿보인다. 결국 각계각층에 의한 활발한 무역활동이 나타나게 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⁷⁾

이러한 무역활동을 통해 각 지방의 신진세력들은 신라 중앙정부에 대적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고, 급기야 개성지방을 기반으로 하여 활발히 해상무역을 하던 왕건에 의해 신라는 무너지게 되고 고려가 세워지게 된다.

청해진의 혁파로인한 무역 독점의 해소가 급기야 통일신라 말기의 어지러운 시대상황을 청산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하는 밑거름이 되어준 것이다.

5. 해상강국으로 가는 길

통계청에 나온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26.4%(쌀을 제외하면 5% 정도)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 말은 약 80%에 달하는 식량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조달한다는 뜻이다. 식량뿐 만이 아니라 각종 원자재의 대부분을 수입하여 쓰고 있는 설정이다. 이렇게 식량과 원자재의 대부분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쓰는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와의 교역은 생존을 위한 필수요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식량과 원자재 등의 물적 자원을 수송하는 주요 경로는 해상이다. 비행기를 이용한 항공수송은 선박에 의해 이루어지는 해양 수송에 비하면 미약하기 그지없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해양 및 해양수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3면이 바다인 반도국가로서 해양을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조건을 지니고 있다. 또한 현재 조선업은 국내 산업으로서 유일한 세계 1위를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좋은 제반조건 하에서 우리가 해양을 더욱 이용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통일신라시대 우리의 조상 장보고를 살펴봄으로써 그 해답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 옛날 우리의 조상 장보고는 해양의 중요성을 일찌감치 깨우치고 청해진을 기점으로 해상왕국을 건설하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해상왕국 청해진은 오래가지 못하고 급속하게 쇠퇴하였다. 여러자료들의 조사를 통해 우리는 장보고의 성공과 실패의 배경을 찾아볼 수 있었다.

장보고가 겪은 성공과 실패를 거울로 삼는다면 우리나라가 해상강국으로 가는 길을 조금이나마 수월하게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장보고의 성공을 본받으면서, 장보고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위해, 현재 우리가 다시 해상강국으

7)해상왕 장보고 <http://www.changpogo.or.kr/main.asp?CMenu=1&Cgubun=1&CPage=depth_11_01.html>

로 거듭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5.1. 해양 군사력의 강화

장보고의 활동으로 동북아시아 알대의 해상에서 해적이 퇴치되어 항해의 불안이 제거되고, 뛰어난 조선술과 항해술로 황해를 이용한 원거리 항해의 안전성이 높아짐으로써 잣은 교류가 가능했다. 이러한 잣은 교류가 바로 조공 등의 공무역은 물론이고, 해외 무역에 대한 강한 욕구를 갖고 있던 개인들의 사무역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한·중·일 동북아시아 삼각 무역의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결국 청해진의 강한 군사력이 왕성한 해양교류를 가능케 한 것이다.⁸⁾

해양강국을 판단하는 척도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군사력이라고 본다. 해군력이 강할 때 비로소 해양 운송능력이 강화되고 해상 교통권을 장악하게 되어 국익을 보호하고 자국민의 생활 터전을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주변국가에 비해 해양군사력 양성에 소홀히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대형 구축함인 이지스함을 4척이나 보유하고 있는 반면, 우린 아직 한척도 없다. 역내 최강의 해군력을 자랑하는 일본은 올해부터 1천2백억 엔(약 1조2천억 원)을 들여 항공모함형 호위함을 건조한다. 중국의 경우도 지난해 10월과 지난 3월 각각 세계 군사 관계자들의 눈길을 끄는 해상 훈련을 실시하고, 계속적으로 항공모함을 확보하는 등 해군육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막강한 해군력을 바탕으로 동북아시아의 삼각무역을 총괄한 장보고를 본받아 지금부터 우리나라로 해군력 강화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물론 이지스함 등 대형 함의 건조와 유지에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군사력증강을 위해서는 일차적인

경제적인 성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5.2 정부와 기업간의 적절한 관계

장보고의 죽음으로 인한 해상권 상실은 결국 시대의 흐름을 읽고 동북아 해상무역을 장악하였으나 조직화에 실패한 한 개인과 뛰어난 개인능력을 국가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급급하여 살해해 버린 부패한 정치권력 모두의 잘못이라고 볼수있다.

장보고는 신라 정부에 압력을 넣어 당시 신분제 사회에서 그가 얻을 수 없는 것을 요구하였다. 납비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장보고의 청해진 세력이 가지고 있던 무력이나 경제력이라면 장보고는 중립을 지키면서 청해진을 잘 운영해 나갈 수도 있었을 것이다. 선불리 중앙정계로의 진출을 시도하였고, 이에 신라정부의 관료들은 장보고를 제거해 버렸다. 장보고의 죽음의 직접적 원인은 결국 그의 성급한 정계진출 시도에 의한 것이었다.

장보고와 신라 정부의 관계를 통해 우리는 현재의 기업과 국가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국가는 국익을 위해서 기업들이 마음놓고 사업을 할수 있도록 기반을 닦아주고 좀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 주어야 할것이다. 한편 기업은 부도덕하지 않은 방법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며 부를 축적을 함으로써 국가에 이익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즉,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나 기업의 한쪽의 힘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긴밀한 관계를 이루며 서로 협력하여야 하는것이다.

하지만 그 둘의 사이에도 분명히 하지 않아야 할 선이 있다. 예를 들면 정경 유착과 같은 것이 바로 그것이다. 국가가 기업의 일에 너무 관여하는 것과 기업이 국가의 정책에 너무 관여하는 것들 모두는 국가 전체에 좋지 못하다. 기업이 정치에 너무 관여하다 정쟁에 휘말려 망하는 경우를 우리주변에서

8) 해상왕 장보고,< http://www.changpogo.or.kr/html/depth_03_03.html>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장보고 또한 아마도 청해진과 신라정부 사이의 거리를 잘 못 잰 것이라 생각된다.

5.3 조선사들 간의 경쟁과 협력

장보고에 의한 무역독점은 다른 해상세력들의 발전을 저해하였고, 또한 장보고의 죽음이후 나라 전체의 해상권 축소를 야기하였다. 즉 장보고의 시장 독점이 나라전체의 장기적인 해상권 존속을 방해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점에 있어 현재 우리나라 조선소의 경우, 한 회사의 독점이 아닌 여러 조선소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 급격한 발전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쟁체제는 서로 경쟁하면서 어느 한쪽이 도태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이익을 보며 사업을 키워 나가는 Win Win 구조라고 할 수 있겠다. 앞으로도 장보고가 겪은 독점의 실패를 겪지 않기 위해선 하나의 조선사가 독점을 하지 않도록 균형적인 조선소의 발전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속적인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의 조선산업은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경쟁과 더불어 우리나라 조선소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협력이다. 장보고의 독점을 통한 중소상인들 간의 갈등은 결국 청해진의 해체와 신라의 해상권 장악 실패로 이어졌다. 이러한 내부의 갈등이 결국엔 국력의 쇠퇴로 이어진 것이다. 국내 조선업계간의 경쟁이 필요하다고 하였지만 너무 경쟁을 강조한다면 장보고의 경우처럼 내부붕괴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적절한 선에서는 국내 조선업계 간에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여야 국가적 차원에서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어, 각 기업이 전략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기술 중 일부라도 우리나라의 조선소들이 공동으로 개발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비록 우리나라 조선소들은 서로서로를 견제할 수 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이러한 노력들을 하게 됨으로써 얻는 이익이 더 클 것이라 생각된다. 서로가 따로 똑같은 기술을 개발해야하는 부담에서 벗어나 공동투자를 함

으로써 자본과 시간이 절약될 것이라 생각이 듈다. 뿐만 아니라 서로가 자신 있는 분야에 대해 연구를 하고, 그 연구결과를 공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곧 중국의 조선 산업이 우리나라의 조선산업을 쫓아올 것이다. 우리가 중국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은 건조비가 아니라 높은 기술력이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서로와의 경쟁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 전체의 조선업의 발전, 조선기술의 발전을 도모하여야 할것이다.

5.4 조선해양분야의 홍보 및 교육

장보고가 죽은 후 해상의 주도권을 중국에게 빼앗긴 것은 장보고의 후대사람들이 해양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결과이다. 현재에도 이러한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으려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해양교육을 통해 사람들에게 해양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어야 할 것이다.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들어서서 IT기술, 영어 등의 중요성만 강조할 뿐 우리의 젖줄인 해양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려는 노력은 많이 부족해 보인다. 또한 고등학교에서의 교육은 입시위주의 교육이라서 다방면으로 체계화된 교육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때문에 입시의 압박이 덜한 어렸을 때부터 정부차원에서 해양의 중요성을 가르쳐주는 체계적인 해양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조선 해양분야의 홍보의 필요성은 조선해양관련 산업에 국한해서 보더라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수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 우리나라의 조선산업이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혹은 우리나라 수출 흑자 비율 중 조선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지 아는 사람은 얼마일까? 아니 우리나라에 조선업에 관련된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어느정도 되는지 알고 있는 사람은 어느정도일까?

아마도 이러한 물음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선산업을 과소평가 하고 있거나, 아니면 아예 관

심이 없을지도 모를 일이다. 이게 바로 우리 조선 산업의 현실이다. 조선업은 엄청난 국익을 가져다 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냉담하기 짝이 없다. 이러한 현실을 국민 탓으로 돌릴 수 있을까?

이제껏 조선산업은 산업의 특성상 내수산업의 비중이 매우 적기 때문에 국내에서의 홍보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핸드폰이나 자동차와 같은 산업의 경우 기업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한 광고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며 국민들에게 좀 더 가깝게 다가간다. 그러나 국민들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하지 않는 조선산업의 경우 아무런 홍보를 하지 않았다. 국민들을 탓할 것도 없이 조선산업 자체가 국민들에게 다가가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조선해양분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부족은 조선해양분야의 인력 확보측면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학생들은 학창 시절에 진로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들은 의사, 변호사, 디자이너, 컴퓨터 프로그래머, 운동 선수, 엔지니어, 선생님, 대기업 입사 등의 그들만의 거창한 희망사항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선박 설계 디자이너, 혹은 조선소 경영자라는 꿈을 가진 사람은 별로 본 적이 없다. 결국, 조선해양 관련산업은 있는줄도 모르고 다른 직업을 택해 버리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조선해양산업에 관해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널리 심어서, 그에 따른 우수 인력을 얻을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다.

5.5 조선해양분야의 리더 양성

장보고는 지나치게 자신의 능력으로만 청해진을 운영하였고 그 결과 장보고의 죽음 이후 청해진이라는 거대한 조직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리더의 부재는 청해진의 혁파로 이어지게 만들었다. 후계자 양성이 어떠한 조직의 지속성을 생각했을 때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장보고는 생전에 자신이 죽은 후 청해진을 이끌어 갈 수 있는 후계자를 양성했어

야만 했다. 아무리 최고의 자리에 오르고 막강한 권력을 누린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어가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공교육을 통해 차기 조선해양 분야의 리더를 양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조선 산업은 지난 20여년간 급 성장하여 세계 제일로 올라섰다. 하지만 새로운 패러다임과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키는 일은 어렵고 힘들다. 외부적으로 중국이 조선산업에 박차를 가하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이공계 기피현상으로 인한 우수인력의 부족이 나타나고 있다. 아무런 대책없이 이대로 나아간다면 아마도 조선산업의 미래가 밝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 조선산업이 더욱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더 나은 조선공학교육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이미 외국에서는 새로운 공학교육에 대한 시도를 하고 있다. 수요자 즉, 기업의 요구를 반영한 창의적인 문제해결 중심교육이다. 이는 수많은 우수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하는 조선소를 가진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 특성상 더욱 더 우리나라 조선공학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이다. 학생은 결국 기업에서 활동하게 되며 기업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전공 단위의 문제가 아님을 볼 때 당연한 방향이라고 보여진다.

그렇다고해서 조선해양공학의 기초분야에 대한 연구를 소홀히 해야한다는 말은 아니다. 선박의 생산과 건조하는데 있어 세계 최고일지 몰라도, 제품 설계기술이나 소재관련 기술에 있어서는 아직 많이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 우리가 조선산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생산과 건조보다는 설계와 기술개발에 힘써야 할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그에 부응하는 공학교육과 인재육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 생각해보자. 첫째, 기술융합 공학교육을 실시한다.

전통적인 전공 또는 학과 단위 교육에 몰두하는 것을 지양하고 인접전공분야와 연계된 기술융합 공

학교육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기업의 연구분야를 조사한 것을 보면 상용화에 가까운 기술개발에 대한 연구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다른분야와의 연계를 통한 응용연구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조선산업이 더욱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조선공학의 발전뿐만 아니라, 환경친화적 생산공정개발, 소재개선, 폐기물 감축, 디자인 및 물류개선 등과 같은 다른 많은 분야와의 연계와 기술융합이 필요하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은 조선공학 전공 교육만으로 문제를 풀 수 없다.

둘째, 장기적인 계획을 통한 기술 개발을 실현한다.

우리는 많은 주요 조선기술들을 외국에 로열티를 지급하며 라이센스 계약체결을 통해 얻고 있는 실정이다. 산자부 자료에 의하면 그나마 조선산업분야의 로열티 지급이 제일 적은 편인데도 말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바꾸기 위해 우리가 조선공학의 기초분야를 장기적으로 연구하고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전무한 상황이다. 이렇게 순수 우리기술 없이 외국의 기술을 받아쓰고, 거기 안주한다면 더 이상의 발전은 기대하기 힘들다. 학교 뿐만 아니라 기업 또한 이러한 기초분야에 관한 연구에 더욱 투자해야지만 장기적으로 우리 조선산업이 살아남을 수 있다.

셋째, 경영능력을 겸비한 공학기술자를 양성한다.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90%가 수출이다. 때문에 조선산업에 있어 경영을 모르는 기술자는 한계를 설정하는 것과 같다. 기술자가 비용을 고려하여 제품 및 서비스를 만드는 주체로 볼 때, 이를 거시적인 관점에서 다루는 경영을 기술자의 영역 가운데 하나로 간주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본다.

넷째, 기업과 대학의 끈끈한 연대가 더욱 요구된다.

조선산업은 다른 어떤분야 보다도 산업계와의 연계가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산학 연계 커리큘럼을 구축하고, 대학생들이 현장에서 현장 실습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제안된 방안은 우리 대학과 기업이 자체적으로

노력하면 실행할 수 있다고 본다. 물론 대학 내에 어려운 결정을 수반하는 사항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같이 조선공학 교육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한다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중국과 같은 다른나라의 추격에 대처하기도 어렵다. 또한 조선공학에 있어서의 학생, 기술자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게 될것이고 이는 더 나아가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질수도 있다.

조선해양공학교육 개선을 위한 교육목표선정, 교과과정의 개편 등의 노력이 필요하고, 그에는 설문조사 연구를 포함하는 다양한 조사활동 통한 교수, 학생, 산업체 간의 요구를 파악해야 한다.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지금의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기자신을 바꿀 수 밖에 없다. 끊임없는 노력과 반성으로 조선해양공학 분야의 올바른 인재를 길러내야만 진정한 해양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을것이다.

6. 맷는말

지금 한국이 세계의 조선산업을 주도해 나가고 있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한국은 다른 국가들로부터 쫓기는 입장이라고도 할 수 있다. 과거 장보고에 의해 동북아시아의 해상무역을 장악하였지만 이후에 해양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하고 중국의 송상에게 해상권을 빼앗겨 버린 일은 현재 중국의 조선산업이 추격해 오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의 조선산업 상황과 매우 흡사해 보인다.

장보고에 대해 조사하면서 우리는 해상왕 장보고의 위대함을 다시 한 번 깨달을 수 있었다. 사무역을 통하여 국부를 축적하고, 해적을 소탕하여 연해민의 평화로운 생업을 보장하고, 주변국과의 독자적 무역 항로를 개척하여 우호관계를 조성하는 것은 그의 역량이 대단했음을 잘 보여준다. 무엇보다도 장보고는 바다의 중요성을 일깨운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 조선공학의 길을 걷는 학생에게 중요한 의미로 다가올 것이란 생각이 듈다. 바다는 우리가 나아갈 길이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

에게 바다는 곧 희망이다. 해상왕 장보고는 그 희망의 세계를 처음으로 개척한 사람 같다.

비록 장보고에게도 몇가지 문제점은 있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업적을 깎아내릴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는 장보고의 훌륭한 점은 본받아 이어받고, 장보고가 가졌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서는 타산지석으로 삼아 과감히 고쳐야 할것이다.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기위해 역사를 공부한다고 하였다. 우리는 우리의 조상 해상왕 장보고의 정신을 이어받아 다시한번 해상강국으로 도약

하여야 할것이다. 조선해양산업이 이러한 해상강국으로의 도약에 디딤돌이 되기를 희망한다. ⚓

참고 문헌

- <해상왕 장보고 그는 누구인가?> (재)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 <장보고와 베네치아의 교훈>박순욱
- <천년전의 글로벌 CEO, 해상왕 장보고> 삼성경제연구소
- <대외문물교류연구 p.184-185>권덕영 외 6인
- <나를 깨워라 (한국사의 경계에 선 사람들)>내일을 여는 역사 지음
- 해상왕 장보고 <http://www.changpogo.or.kr>
- <공학교육 살리기제언>안병엽 ICU총장